

# 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[seogil.chang@kotra.or.kr](mailto:seogil.chang@kotra.or.kr))

2023.06.30.(금) 제23-073호

## ◆ [Focus] 미, 에너지 분야 고용 증가세 두드러져

### ◆ [What's News]

- (반도체) 네덜란드, ASML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예고 고시
- (철강) 미-EU 지속가능한 철강·알루미늄 협정(GASSA) 협상 난항
- (미국동향) '바이드노믹스(Bidenomics)'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
- (수출통제) 미국, 중국 인공지능(AI)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규제 검토
- (미중관계) 美 언론, 중국 신 외교법과 개정 방첩법 관련 우려
- (IPEF) 청정·공정경제 필라를 논의한 IPEF 장관급 화상회의

### 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## FOCUS

## (에너지·고용) 미, 에너지 분야 고용 증가세 두드러져

“2023년 미국 에너지 및 고용보고서 주요 내용”

### 1. 개요

#### □ 美 에너지부, 2023년 미국 에너지 및 고용 연례보고서 발간(6.28)

\* 2023 U.S. Energy and Employment Report (USEER)

#### ○ 2021~2022년 대상, 에너지 및 에너지 기술 산업 고용 동향 발표

- 미국의 에너지 부문 종사자는 2022년 기준 약 300,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년 대비 3.8% 증가율을 기록, 총 일자리는 810만개 수준
- 특히, 미국 내 총 114,000개의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3.9% 증가율을 기록, 전체 에너지 일자리의 40% 이상 차지
-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홀름(Jennifer Granholm) 장관은 성명에서 “청정 에너지 분야의 가시적인 일자리 성장세는 대통령의 미국 투자 의제 (Invest in America Agenda)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반영한다” 자평

## 2. 주요 내용

### □ 미국 투자 의제(Invest in America Agenda) 추진, 탈탄소 경제 달성 노력

-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의제에 기반을 둔 투자 및 고용 창출을 반영, 미국 내 모든 주(every state)에서 청정에너지 일자리 증가 발표
  - 주요 에너지 및 에너지 기술 산업의 연방 및 주 고용, 인력, 산업, 직종, 인구 통계 및 고용 현황 등 주요 통계 자료를 포함
  - 투자 의제 추진과 더불어 2035 청정 전력 100%와 2050 넷제로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

#### <에너지부 보고서 여섯 가지 주요 내용(6 Key Findings)>

##### (1) 에너지 부문의 전체 일자리 증가

- 에너지 부문 일자리는 '21년 총 780만개에서 '22년 810만개로 증가
- '20년 펜데믹 시점 대비 일자리의 71% 회복

##### (2) 에너지 산업은 전체 기술 분야에 걸쳐 모두 성장세

- 수소 전지(25%), 해상 풍력(20%), 전력그리드(12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10%)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세로 일자리 창출 기여
- 자체 설문문에 따르면, 기술 분야 고용주는 2023년까지 성장에 대해 낙관 전망

##### (3) 특히,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증가

- 태양광 및 풍력 등 신규 청정 일자리는 전체 약 87% 차지, 22,279개 일자리 증가
- 관련 분야는 모든 주에서 일자리가 증가했으며, 전국적으로는 3.9% 증가, 미국 전체 일자리는 3.1%로 이를 초과하는 수치

##### (4) 전기 자동차 분야는 에너지 분야 중 가장 빠른 성장세

- 에너지 기술 중 가장 빠른 성장세로 28,366개의 일자리가 증가(+27%)
- 전기차 등 청정차량 관련 일자리는 자동차 신규 일자리의 59% 차지

##### (5) 에너지 산업 내 성별, 인종 등 종사자 분포 분석

-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는 150,000명(+7.8%), '22년 추가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
- 에너지 인력의 1/4은 비백인(non-white) 근로자로 전체 인력 중 비백인 비율인 23% 보다 약간 높은 수준

##### (6) 에너지 분야 종사자는 노조 대표 또는 단체 교섭 보호 비율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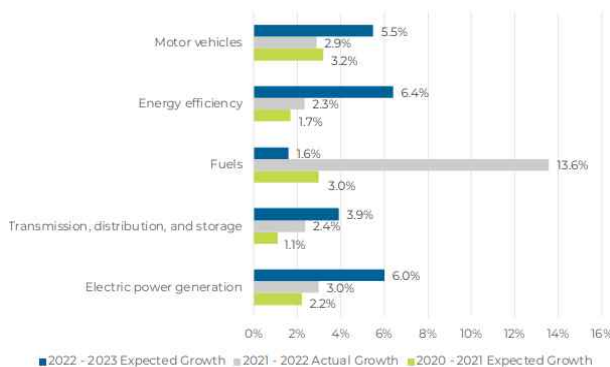
- 노조로 대표되거나 프로젝트 노동 또는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보호 받는 근로자 비율(11%)은 민간 부문 평균(7%)의 1.5배 이상

[자료: 美 에너지부 보도자료]

### 3. 현지 반응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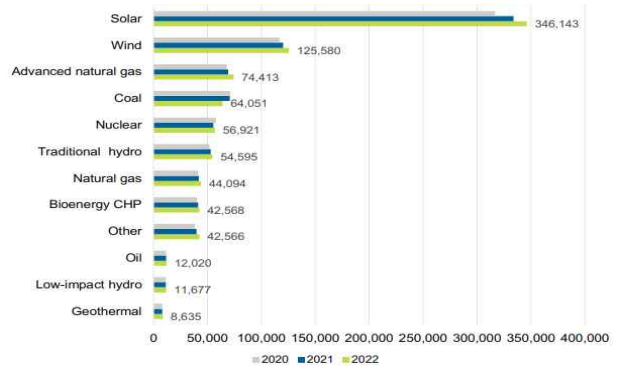
-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성장세 확연, 2023년에는 IRA 효과로 심화 전망
  - 미국 내 일자리가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 태양광, 풍력 및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상당 부분 회복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
    - 국가기후보좌관 알리 자이디(Ali Zaidi)는 이번 발표에 대해 “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비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”라고 환영
    - 현지 언론 폴리티코는 미국 내 모든 주 에너지 부문 일자리 증가를 보도하며,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정책 효과를 포함하면 에너지 및 기술 분야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 예측
    - \* 이번 보고서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의 고용 동향만을 포함
    - 또한, 배터리 전기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, 수소 및 연료 전지 차량의 일자리를 포함한 청정자동차 일자리의 빠른 성장세에 주목했으며 이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성장세 대비 17배 속도라고 설명

<기술별 고용 변화 예상 및 실제 비교>



\* 대부분 실제 고용은 기존 예상치보다 더 많이 증가  
[자료: 美 에너지부]

<에너지 기술, 산업 및 직종별 고용 현황>



\* 태양광 (12,256명) 증가, 석탄(-6,780명) 감소 등  
[자료: 美 에너지부]

|       |  |
|-------|--|
| 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■ 자료원 | 美 에너지부(6.28), 폴리티코(6.28)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무역관 보유자료 |

### □ (반도체) 네덜란드, ASML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예고 고시

- (개요) 네덜란드, ASML社 노광장비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 규정 발표
  - '19년 극자외선(EUV) 노광장비에 이어 심자외선(DUV) 노광장비로 수출통제 대상 범위 확대(6.30.자 관보 게재)
- (상세) 9월 1일부터 DUV 3종 제품 수출 시 당국의 허가 취득 必
  - 통제 대상은 고사양 DUV 제품으로 모델명 △TWINSCAN NXT:2000i △NXT:2050i △NXT:2100i 이상 3개 제품
- (전망) 미국 정부, 저사양 DUV 제품 대중 수출까지 봉쇄 계획
  - 로이터통신에 따르면, 미국 정부는 7월 말경 공개될 신규 규정에서 SMIC 등 6개 중국 기업으로 수출되는 저사양 DUV 통제 예상

|       |   |
|-------|-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▪ 자료원 | Bloomberg(6.30), 네덜란드 왕국관보(6.30), 로이터통신(6.29) |

### □ (철강) 미-EU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협정(GASSA) 협상 난항

- (개요) 파이낸셜타임스, EU가 미국의 GASSA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
  - 관계자에 따르면, EU가 WTO 규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미국 측 제안(철강 생산 시 탄소배출에 비례한 관세 부과)에 수용 불가 방침 전달
- (상세) 올해 10월까지 협상 불발 시 對EU 철강 232조 관세 재가동
  - EU 측은 탄소 국경조정 제도(CBAM) 방식을 역제안. 하지만,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부재한 미국은 CBAM 도입에 난색
  -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에게 EU와 협상 여지 부족\*
  - \*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, 232조 관세 양보 등 사안이 현 정부에 정치적 불리
- (기타) 미-EU 핵심 광물 협정도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체 중
  - EU는 미국 법으로 정한 핵심 광물 50개 품목의 IRA 특혜 요구

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  |
| ▪ 자료원 | 파이낸셜타임즈(6.28) |

## □ [미국동행] ‘바이드노믹스(Bidenomics)’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

- (개요) 백악관, 바이든 정부 경제 치적 홍보를 위한 성명 발표(6.28)
  - 백악관이 발표한 바이든의 경제 정책인 ‘바이드노믹스’는 세 가지 중점 (△공공 투자, △노동자 역량 강화, △비용 절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쟁 촉진)을 포함해 미국 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우선시
  -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회복 등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,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다수
- (상세) ‘바이드노믹스’, 중산층 재건을 위한 ‘아메리칸드림’ 복원 목표
  - 바이든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행한 연설에서 ‘바이드노믹스’의 핵심 과제로 미국 내 투자와 중산층 성장을 돕는 교육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 독과점 규제를 제시
  - 또한, 바이든은 과거 실패한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‘바이드노믹스’를 통해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내년 재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
  - 이와 덧붙여,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통한 ‘낙수 효과’는 중산층 기반을 축소하고 근본적인 불평등을 증가시켰다며 언급
- (전망) 바이든의 경제 정책, 유권자 대부분에서 부정적인 견해 존재
  - 이날 발표된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(NORC)의 여론조사에 따르면, 유권자의 약 1/3만이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지지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                   |
| ■ 자료원 | 백악관(6.28, 6.28). AP-NORC(6.28) |

## □ [수출통제] 미국, 중국 인공지능(AI)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규제 검토

- (개요) 미국의 대중 AI 반도체 규제,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
  -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국 포함 '우려 국가'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허가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을 통해 전언
  - 추가 수출 통제 대상 업체는 엔비디아(NVIDIA)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(AMD)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표 시기는 미정
- (상세) 대중 AI 반도체 수출 제한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금지 검토
  -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대중 수출 통제 규제로 AI에 많이 쓰는 A100 반도체가 수출 금지되자 저사양 A800을 개발해 중국에 판매
  - 그러나, 신규 규제는 A800 수출까지 통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, 중국 AI 업체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금지도 검토
- (전망) 엘런 재무장관 중국 방문 이후 추가 수출통제 발표 전망
  - 대중 관계 악화를 우려, 올해 7월 초로 예정된 재닛 엘런 재무장관의 방중 이후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
  - 또한, 미국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이 중국에서 저성능 반도체 생산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                |
| ▪ 자료원 | WSJ( <a href="#">6.27</a> ) |

## □ (미중관계) 美 언론, 중국 신 외교법과 개정 방첩법 관련 우려

- (개요) 중국 신 외교법 제정과 방첩법 개정으로 인한 미국 기업 타격 우려 보도
  -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새 외교법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대상 서방 경제 제재와 수출규제에 대응할 권한을 강화하여 향후 중국의 더 강력한 조치와 통제가 전망, 해외투자 유치 감소 우려
  - 국가 안보 관련 데이터 유출, 간첩행위 근절을 위해 개정된 방첩법은 중국 내 美 기업의 정상 비즈니스 활동을 잠재적 범죄 행위로 취급할 가능성 제공
- (상세) 공산당의 외교 장악력 강화와 엄격한 국가 안보 관련 외국 기업 감시 전망
  - 신규 외교법은 시진핑의 두 외교 정책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도 함께 포함,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
  - 파이낸셜타임즈는 이 법안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려, 블룸버그는 그간 베이징의 미국 제재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 법 또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 전망
  - 미국의 방첩 당국자들은 중국의 방첩법 개정에 대해 이 법률이 간첩 행위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게 기업 정보에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고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미국 경영진들에게 경고
  - 방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의 정의를 “국가 기밀 및 정보”에서 “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서, 데이터 등”으로 확대,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 허용, 출입국 제한 부과 항목 포함
- (참고) 중국은 여전히 해외 사업에 개방적임을 강조
  - 중국, 이 법에 “높은 수준의 개방”과 외국인 투자 보호, 외부 경제 협력을 장려한다며 외국 기업·단체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박소현

▪ 자료원 | 블룸버그(6.29), 파이낸셜타임즈(6.29), 월스트리트저널(6.30)



## □ (IPEF) 청정·공정 경제 필라를 논의한 IPEF 장관급 화상회의

- (개요) 미 상무부, IPEF 장관급 화상회의 개최 결과 발표(6.29)
  - 14개국 장관이 모두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필라를 타결한 기세로 청정경제(필라3)와 공정경제(필라4)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
  - 한 편, 상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 국제개발금융공사(DFC)의 3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대상에 필라3 참가국이 포함됨을 공식화
- (상세) 필라별 요구 수준 달성 및 실질적 혜택 제공 방안 등 논의
  - 필라3 관련해서는 민-관 협력 투자 포럼 구성, 회원국별 추진 프로젝트 공유, 기후기금 활용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등이 제시
  - 또한 필라3 회원국 대상의 DFC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기금과 I Squared Capital로부터의 금융지원\*을 발표
    - \* DFC 지원금액의 3배를 매칭펀드로 지원, 총 12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
  - 필라4 관련, 미국은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요성 강조
  - 회원국들은 청정경제 달성을 위한 투자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지,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저리 금융지원의 중요성 강조
- (비고) 다음 협상 라운드(4차)는 7월 부산에서 개최(7.9~15)
  - 미국,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라3·4 타결을 목표하는 것으로 보여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장석일

▪ 자료원 | 상무부(6.29), 인도네시아 정부(6.30), 인사이드트레이드(6.30) 등



## Top Headlines

| 언론사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보도내역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The Wall Street Journal | <a href="#">Goldman Is Looking for a Way Out of Its Partnership With Apple</a><br>(골드만삭스, 애플과의 파트너십 “출구 모색”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보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아멕스와 애플 카드 사업부 등 매각을 논의. 골드만삭스는 소매금융 사업부 축소를 추진하고 있었음  |
| The Washington Post     | <a href="#">Supreme Court rejects Biden’s student loan forgiveness plan</a><br>(연방대법원,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제동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판결.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을 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The New York Times      | <a href="#">Supreme Court Rejects Student Loan Forgiveness Plan</a><br>(연방대법원,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기각)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방대법원, 6-3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4,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기각, 대통령 권한에 제동. 바이든,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비판                  |

\* 미국 동부시간 6월 30일 17시 기준

## Notice

### 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\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☞](#))

| 발간번호    | 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간시기     |
|---------|--|----------|
| US23-20 | <a href="#">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통계로 보는 변화</a>                 | 2023.06월 |
| US23-19 | <a href="#">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스 의견서 주요내용</a>       | 2023.06월 |
| US23-18 | <a href="#">RE100,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</a>              | 2023.06월 |
| US23-17 | <a href="#">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             | 2023.06월 |
| US23-16 | <a href="#">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      | 2023.05월 |
| US23-15 | <a href="#">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(FDI) 동향 및 시사점</a>     | 2023.05월 |
| US23-14 | <a href="#">미국 반도체 R&amp;D 지원 정책 방향</a>                | 2023.04월 |
| US23-13 | <a href="#">미 환경보호청(EPA)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 | 2023.04월 |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헤드림 심층보고서☞](#))

| 발간번호      | 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   | 발간시기     |
|-----------|--|----------|
| US22-기 획7 | <a href="#">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</a>                  | 2023.01월 |
| US22-기 획6 | <a href="#">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</a> | 2022.12월 |
| US22-기 획5 | <a href="#">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</a>                | 2022.12월 |
| US22-기 획4 | <a href="#">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</a>                 | 2022.11월 |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☞](#))

| 인터뷰번호                 | 제목  | 바로가기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코인시-14<br>(2023.6.30) |  <p>전미자동차연구센터(CAR) '앨런 아메라' 대표 인터뷰<br/>자동차 업계를 둘러싼<br/>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</p> |  |
| 코인시-13<br>(2023.6.26) |  <p>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'켄달 스투리버' 인터뷰<br/>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<br/>글로벌 공급망 재편!</p>           |  |